

## 교회의 일치와 순결에 관한 요한 칼빈의 견해

김길성

I. 칼빈은 먼저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institution)이라고 말했다.

II.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로 말하였다.

III. 칼빈은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교통”에서 찾는다.

IV. 칼빈은 교회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불렀다.

결론

교회의 일치와 순결에 관한 요한 칼빈의 견해는 일차적으로 「기독교강요」(최종판, 1559년)에 잘 나타나 있다.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기독교강요」 제 4권에서 교회론을 다루고 있다. 칼빈은 당시 종교개혁을 비방하는 무리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열광주의자들의 잘못도 염두에 두고 그의 교회론을 전개해 나갔다.

## 1. 칼빈은 먼저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institution)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기독교강요」 제 4권 1장의 시작 부분에서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앞 책에서 설명한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져온 구원과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복음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나 우리의 무지와 태만으로 인하여 - 나는 이것들 외에 마음의 허망감을 하나 더 첨가한다 - 우리 안에 신앙을 일으키고 증진시켜, 또한 그 목적지까지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러한 도움을 하나 더 마련해 주신 것이다.<sup>1)</sup>

칼빈은 교회의 설립을 사람의 일로 돌리지 않고 우리 인간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계속해서 교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또한 복음의 설교가 넘쳐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이 보물을 위탁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교사”(엡 4:11)를 제정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가르치도록 하시고, 그들을 권위로 옷 입히시고, 마침내 신앙의 거룩한 일치와 바른 질서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어느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으셨다.<sup>2)</sup>

칼빈은 이 땅에서 교회가 신자들의 어머니로서 가지는 역할에 대해

---

1) *Inst.* IV, I, I.

2) *Ibid.*

강조하고, 동시에 교회를 통해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교회의] 품안에 자기 자녀들을 모으기를 기뻐하시며, 저들이 어린아이로 있을 동안 교회의 도움과 목회로 말미암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어른이 되고 마침내 신앙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 어머니 같은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인도함을 받게 된다.<sup>3)</sup>

칼빈은 또한 바로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역자들을 두셨으며, 이들이 멸시를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또한 교회 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본 주제에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엡 4:10~13 주석 참조)라고 하였다. 우리는 한 순간에라도 자기 백성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이 오직 교회의 교육을 받고 성인으로 자라나기를 바라고 계신지를 알게 된다. 이를 위해 방편을 세우셨으니, 곧 천상 교리의 설교가 목사들에게 부과되었다.<sup>4)</sup>

칼빈은 무엇보다 먼저 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임을 강

---

3) *Ibid.*

4) *Inst.* IV, 1, 5.

조하고, 이 땅 위에서 성도의 교통을 위한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했다.

## II.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로 말하였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 4권 1장에서 유형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로 칭하고 있다.<sup>5)</sup> 이어서 그는 우리가 유형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자기 태속에 잉태하고 낳아서 자기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일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죽을 육신을 벗고 천사들처럼 될 때까지(마 22:30) 어머니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다른 길은 없다.<sup>6)</sup>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어머니 학교”(her school)로부터 일평생 학생 신분으로 남아야 하고 물러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sup>7)</sup> 칼빈은 이 어머니 학교의 유용성에 대해 다시 이렇게 말한다:

이사야 37장 2절과 요엘 2장 32절이 증거 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품을 멀리 떠나서는 죄와 용서와 구원의 소망이 없다.<sup>8)</sup>

교회를 어머니라고 한 표현은 칼빈 자신의 창작이 아니라 어거스틴 이후 로마 교회에서 교회의 절대권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해오던 용어

5) *Inst.* IV, 1, 4.

6) *Ibid.*

7) *Ibid.*

8) *Ibid.*

였다. 그러나 칼빈은 로마 교회에서 즐겨 사용하던 그런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신앙 훈련소로서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강조하여 이 용어를 사용했으며, 가부장적 권위를 가진 로마 교회와는 달리 어머니로서 자식을 보호하고 훈련하듯 신자들의 신앙을 훈련하는 곳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 훈련을 강조한 칼빈의 교회관은 제네바 교회뿐만 아니라 그 후 개혁파 교회의 특징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 Ⅲ. 칼빈은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교통”에서 찾는다

그는 「기독교강요」 제 4권에서 교회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 “사도 신경에 기록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들이 형제로 하나가 되며, 또한 교회의 정당한 권위를 승인해야 한다는, 간단해 말해 우리 각자가 양 무리에 속한 한 마리의 양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형 교회에도 어느 정도 적용된다. 따라서 여기에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이 첨가되었다.”<sup>9)</sup> 교회의 일치와 순결을 위한 칼빈의 열심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회의 제도에 대항하여 기존 교회의 하나 됨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참 교회를 재정립하고자 했다. 그는 참 교회의 표지로서, 설교된 말씀과 귀로 듣는 말씀 외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의 바른 시행을 언급했다.<sup>10)</sup> 그리고 이러한 표지가 보이지 아니하고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의 파괴가 뒤따를 뿐이라고 말했다.<sup>11)</sup>

9) *Inst.* IV. 1. 3.

10) *Inst.* IV. 1. 9.

11) *Inst.* IV. 2. 1.

칼빈이 교회를 성도의 교통으로 말한 것은 그가 불가견 교회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불가견 교회를 교회의 두 표지와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존재해 왔으며 ……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한 그의 교회는 살아 있다. 그러나 사실상 나타나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도 교회의 형태가 늘 나타나 보인다는 점은 이율배반이다. 그리고 교회는 외형적인 화사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말씀과 성례의 두 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sup>12)</sup>고 했다.

칼빈은 다시 유형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와 개별적 교회로 구분하는데, 이 경우 보편적인 교회는 공간적으로 나뉘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동의하고 같은 신앙의 매는 줄로 뭉쳐 있는 교회”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 보편적인 교회가 개 교회들이 상호관계 속에서 철저히 교회의 표지를 지향하는 데서 도모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13)</sup>

칼빈은 교회들 사이에 비본질적인 요소 때문에 분리하고 반복하는 일을 금지하고 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를 “우리의 모든 종교적 원리를 근원부터 전복시키는 자”라고 비난했다.<sup>14)</sup> 또한 삼위일체를 반대했던 마태오 그리말디에 대해서도 칼빈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파괴하는 자”라고 말했다.<sup>15)</sup>

그가 말하는 성도의 교통이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교통과 교제를 의미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르침에는 비본질적인 요소도 있으나,

12) *Johannis Calvini Opera Selecta* [OS] 1, 31f; *Corpus Reformatum* [CR] 1, 20f.

13) *Inst.* IV, 1, 9.

14) CR, 14, 615.

15) CR, 16, 465.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조례도 있음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가 신앙의 “근본적인 조례”를 제쳐놓고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sup>16)</sup>

#### IV. 칼빈은 교회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불렀다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곧 교회라고 하였다. 칼빈은 교회가 성도들의 단체, 곧 피택자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참으로 적은 수의 사람이 수많은 군중 속에, 그리고 몇 알의 밀알이 쭉정이더미에 묻혀 있다고 말하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은밀하신 선택과 내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성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하나님의 은밀하신 선택과 내적인 부르심은 매우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 자기 백성을 아시며(딤후 2:19) 그들을 인치심으로 돌려 지키시기 때문이다(엡 1:13)”라고 말했다.<sup>17)</sup> 그리고 “이 은밀한 선택에 기초한 교회를 아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sup>18)</sup>

칼빈은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속한 무형 교회와 참 신자와 위선자를 다 포용하는 유형 교회를 구분했다.<sup>19)</sup> 그러나 그는 누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선택함을 받았는지 또는 버림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다.<sup>20)</sup>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칼빈이 신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실제로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를 구분한다는 것을 불가능한 일로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그는 자신이 다루고 있는 교회가 무형

16) CR, 10, 11, 275, 352ff.

17) *Inst.*, IV, 1, 2.

18) *Ibid.*

19) *Inst.*, IV, 2, 7.

20) OS I, 88; CR 1, 74: qui aeterno eius consilio electi, qui reprobati sint.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유형 교회가 실제적인 교회가 아니라 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를 두 교회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니고 있는 분리할 수 없는 양면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 칼빈에게 있어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는 대칭 되는 두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유형 교회는 무형 교회의 필수적이며 유용한 표현 이요, 우리가 이생에서 머무는 한에 있어 유형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는 말했다.<sup>21)</sup> 그러므로 이 땅위의 삶 속에 우리가 알도록 주어진 유일한 교회는 바로 이 유형교회이며, 이 땅 위에 선택받은 자들의 불가견적 교통의 표지가 되는 관계이다. 이 때문에 칼 빈은 기독교인들은 불가견적 몸의 회원이 되기 위한 핑계로 유형 교회를 버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선포와 신자의 성 화를 위해 유형 교회를 세상에 외적 방편으로 두신 것이라고 하는 칼빈 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sup>22)</sup> 1537년 파렐과 더불어 「제 1 제네바 신앙 고백서」에 대한 서약을 제네바 전 주민들에게 요구한 일이나, 또한 바 젤에서 「제 1 헬베틱 신앙고백서」에 대한 서약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 락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교회의 표지에 대해 말하면서, 칼빈은 교회의 표지로서의 말씀의 올바른 선포와 청취 그리고 성례의 올바른 시행을 들고 있다.

① 말씀의 선포와 청취: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전파되 며 그리고 그것이 들려지는 곳과 또한 성례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 대로 시행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 이며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한다.<sup>23)</sup> 이와 같이 칼빈

21) *Inst.* IV. 1. 7.

22) *Inst.* IV. 1. 10.

23) *Inst.* IV. 1. 9.



은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사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식별하는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말씀에 대한 순수한 봉사와 성례전 시행의 바른 의식은 충분히 보증이 되며, 우리는 이 두 가지 표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확실하게 교회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sup>24)</sup>

이리하여 칼빈은 교회를 식별하는 표지인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준수는 반드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번성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경우, 칼빈은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열매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말씀이 확고하게 자리를 차지하게 된 곳에서 말씀이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교회를 일컬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불리는 것은 작은 의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sup>25)</sup>

그러므로 칼빈은 설교를 매우 중요시했고 스스로 이를 실천에 옮긴 개혁자였다. 그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총이 전달되고,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결실을 맺게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러한 결실이 회개, 죄의 용서 성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칼빈은 아직도 로마 교회를 참된 교회로 인정하려는 사람들에게 반대하여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 제도가 아니며, 상당한 종교 단체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단체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부패한 종들과 구별되는 것은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의 명령에 의해서만 지도 받기를 원

24) *Inst.* IV. 1. 11.

25) *Inst.* IV. 1. 4.

할 때 그렇게 된다.”고 강조했다.<sup>26)</sup> 이처럼 칼빈은 참된 교회의 표지로써 말씀의 선포를 강조했다.

② 성례의 시행: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제 4권 14장에서 19장에 이르기까지 로마 교회의 잘못된 성례관을 비판하고 개혁파 성례관을 확립했다. 칼빈은 “성례란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신앙을 북돋우어 주시고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신 일의 외면적 표지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경건을 간증하는 일이다”라고 성례를 정의하고 있다.<sup>27)</sup>

어거스틴도 성례를 일컬어 “거룩한 것의 가견적 표현이요, 불가견적 은혜의 가견적 표현”이라고 하였는데,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의 성례관은 어거스틴의 성례관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sup>28)</sup> 칼빈은 로마 교회의 7성례 가운데 세례와 성찬의 2가지만 성례로 인정하였으며, 특히 로마 교회의 성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성찬에 대한 칼빈의 강조는 기독교론적이며 성령론적인 그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칼빈은 성례의 효력이 성령의 권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성례전은 그 속에서 존재하는 교사이신 성령께서 참여하실 때에야 비로소 제대로 그 임무를 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힘에 의해서만 마음이 통하여 꿰뚫어지고 감정이 고조되어 성례전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sup>29)</sup>라고 말했다.

칼빈은 성찬을 통한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주장함으로써, 로마 교회의 화체설(Transubstantiation)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26) 사도행전 28장 21절 이하 주석 참조.

27) *Inst.* IV. 14. 1.

28) *Ibid.*

29) *Inst.* IV. 14. 9.

루터교의 공재설(Consubstantiation)에 대해서도, 또 한편으로는 츠빙글리의 상징설 또는 기념설(Commemoration)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칼빈이 성찬의 가치를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와 더불어 시행되는 성찬의 의미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③ 권징의 중요성: 칼빈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교회의 표지로서 말씀의 올바른 선포와 성례의 올바른 시행을 말하는 동시에 말씀의 순결함과 성도들의 성화 생활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권징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칼빈은 이 권징을 교회의 제 3의 표지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데, 그는 권징이 교회의 본질에는 속하지 않지만 교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칼빈 이후의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 권징을 교회의 제 3의 표지로 간주했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 4권 12장에서 권징을 다루고 있다. 칼빈의 견해에 따르면, 권징의 목적은 다음 3가지로 들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불명예스런 생활을 보내는 자가 하나님께 모욕을 끼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사악하고 모독적인 사람들의 소굴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이름에 치욕의 낙인을 찍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기독교의 이름에 불명예를 초래하는 자들을 교회의 가족으로부터 추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선량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타락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3) 이 사람들이 자신의 추악함에 대해 부끄러움에 놀라 스스로 회개하도록 하고자 함이다(「기독교강요」 IV, 12, 5).

그러하여 칼빈은 교리의 혼란과 회원들의 건덕상의 추문이 있을 때는 순결함과 성화의 생활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교회가 권징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칼빈 그 자신도 교회에서 교리의 순결을 유지하고

성도들의 성화 생활을 지도하고 도와야 할 의무와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권징에 대한 그의 입장을 통해서 우리는 칼빈이 그것을 교회의 본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여기거나 무시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순결과 질서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이 권징을 교회 보존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 것은 교회의 본질인 말씀의 올바른 선포와 성례의 올바른 시행이 바르게만 된다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칼빈 역시 지상 교회는 완벽하게 순정한 교회(*pura ecclesia*)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그의 생각은 1세기 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요(*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와 대소요리문답(*the Westminster Larger and Shorter Catechisms*, 1643~1647)에 잘 반영되어 있다. “하늘 아래 가장 순결한 교회들이라고 할지라도 혼잡과 오류에 빠지기 쉬우며, 또한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가 될 만큼 타락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지상에 항상 존재할 것이다.”<sup>30)</sup>

칼빈은 이 지상 교회에 있어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말씀대로 집행되는 곳에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그는 비록 교회의 제3의 표지로는 여기지 않았지만, 이 지상 교회의 말씀의 순결과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권징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상 교회는 너무 자주 “하늘 아래 가장 순결한 교회들이라고 할지라도 혼잡과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후대의 개혁파 신학자들이 권징을 교회의 표지에 포함시킨 것은 칼빈의 정신과 이해에 어

30)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25:5.

긋난다고 볼 수 없다.

칼빈은 이러한 표지가 보이지 않고 도리어 모든 기본적인 교리가 왜곡되었거나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의 파괴가 뒤따를 뿐이라고 말했다.<sup>31)</sup> 신자들은 구원의 근거를 오직 그리스도께만 두어야 한다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교훈이 교회의 기초인데, 이 기초가 제거된다면 교회라는 건물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교회는 말씀으로만 존속할 수 있으며, 따라서 칼빈은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했다.<sup>32)</sup>

그리고 칼빈은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개혁을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의 분리라고 비난한 사실에 대해서, 로마 교회의 추기경 사들렛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모든 군사들이 대열을 떠나서 혼란을 빚고 있을 때, 한 병사가 군기를 높이 쳐들고 모두 본 위치로 돌아오도록 외친다면 무엇이라고 할 것입니까? 그와 같은 행위를 교회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이리가 와서 자기 교회를 해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미혹할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투장에 어느 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누워 있다고 하여 그것을 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sup>33)</sup>

또한 계속해서 답변하기를,

그럴 수 없지요. 당신은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불붙는 열심을 가지고 임하지만, 교회를 하나로 매는 줄은 다만 주의 진리뿐임을 저는 너

31) *Inst.* IV, 2, 1.

32) CR, 43, 343, vgl. 200. “nullam esse ecclesiam, quae non subicitur verbo Dei et regitur.”

33) CR, 5, 409, 410; OS, 1, 482, 483.

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sup>34)</sup>

고 했다. 칼빈은 성경에 기초한 성경적 교회관을 후대의 개혁파 교회에게 남겨준 것이다.

## 결 론

칼빈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으로 말하고, 동시에 그는 교회를 어머니로 지칭하면서 지상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세의 로마 카톨릭 교회와는 구별하여 교회의 본질을 우선적으로 성도들의 교통에서 찾았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말하고, 로마 교회의 외적 일치에 반대하였으며, 어거스틴의 입장을 따라 유형 교회와 동시에 무형 교회를 말하였다.

그는 이 모든 것 위에 말씀 선포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들려지며, 성례가 말씀대로 바르게 시행되는 곳에는 교회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상 교회의 불완전성을 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일치에 힘써야 할 것을 역설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씀의 순결한 선포와 교회의 질서를 위해 권징이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칼빈에게 있어 교회는 성경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교회를 의미했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은 교회를 성도의 교통이라고 칭함으로써 유기체적인 교회를 강조하는 한편, 말씀 선포와 성례의 집행을 위해서 교회에 설립된 교회의 직원인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구성되는 제도적 교회를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sup>35)</sup>

34) Ibid.

35) 칼빈은 「기독교강요」 초판(1536)에서는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구분하고 있으나, 「기독교강요」 최종판(1559)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의 세 직분을 말하고 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주석을 참조하라.

그리고 그는 이 지상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보다도 설교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격동의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한 우리는 새롭게 개혁주의 교회관을 정립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역사적으로 교회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고백을 했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결정한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We believe ... one, holy, catholic, apostolic church).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the Nicene-Constantinopolitan Creed, AD. 381)는 교회에 대해 4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다:<sup>36)</sup>

1) 하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하나의 교회를 고백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의 외면적·제도적 통일이 아닌, 내면적·영적 특성을 지닌다. 교회는 머리되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2) 거룩한 교회를 고백하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보적인 의로움의 효능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전 3:15)로서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 교회는 일차적으로 성도들의 교통이다. 거룩을 위해 힘써야 한다. 거룩의 속성을 포기한 교회는 배교한 교회로 불릴 수밖에 없다.

3) 보편적 교회를 고백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어느 한 단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있다. 완전한 보편 교회는 선택받은 자들의 총수에 해당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만 식별 가능한 무형 교회이다. 그러나 이 무형 교회도 지상의

36)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1877;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7), 28-9.

유형 교회와 따로 분리해 생각할 수 없으며, 유형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아시고 자기 백성을 지도하고 계신다.

4) 끝으로 우리는 사도적 교회를 고백한다. 사도적 교회라고 해서 로마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베드로를 사도들의 대표자와 로마 교좌를 대표하는 제 1대 교황으로 고백하는 로마 교회의 주장을 합리화할 수 없다. 우리는 사도들의 권세가 사도 이후에 계승된다고 하는 사상을 성경에서 찾지 못한다. 우리가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적 말씀의 전통, 사도적 교리의 전통에 선 교회를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남기신 말씀과 그의 구속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성경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도적 말씀의 전통에 선 교회를 고백한다. 오직 성경만이 교회를 지도하고 현대 교회의 표준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개혁파 교회, 정통 칼빈주의 교회의 바른 고백이 될 것이다.

칼빈의 제자인 베자에 따르면, “개혁파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이다. 과연 오늘 우리에게 개혁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개혁은 바로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일치와 순결에 관한 요한 칼빈의 견해는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바른 판단을 위한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